

현안과제연구

Issue Report

2016. 12. 31

CONTENTS

〈요약〉

1. 시작하며
2. 풀무학교로 시작한 교육공동체
3. 학교농촌, 풀무학교 전공부
4. 마을교육공동체를 지향하는 홍동
5. 정책제언

홍동지역 마을교육공동체와 마을발전

송두범 : 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 dbsong@cni.re.kr

본 연구의 목적은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의 마을교육공동체중 풀무학교와 풀무학교 전공부,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한 마을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음.

요약

- 2016년 충청남도과 충청남도교육청간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 만들기를 위해 업무협력 협약서를 체결
 -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간 협력을 통해 교육혁신의 생산적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4대 추진전략, 19개 전략과제, 24개 세부사업을 발굴.
- 홍성군 홍동면은 공교육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대표적 지역임
 - 풀무학교와 풀무학교 전공부, 마을내 다양한 교육관련 조직들의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을 통해 향후 마을발전을 바란직한 방향을 제시코자 함.
-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와 마을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제시코자함.
 - 학교가 주도하는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 운영 필요. 마을교육을 위한 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운영, 공동체교육을 위한 통합교육과정 설계, 교육적 인프라와 자원활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마을의 교육력 강화를 위한 주체를 발굴하고 육성지원 필요. 학교교사, 마을지도자, 학부모, 코디네이터 등 마을내 활동가들과 마을주체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장 마련
 - 학교와 마을간 파트너십 구축을 지원할 필요. 마을교육공동체 모임구성, 학교공간의 공동이용 등
 - 마을과 학교간 작은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 마을과 학교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작은사업부터 추진
 - 마을교육공동체 참여주체 역량 제고. 교사, 학부모, 학생, 마을주민(활동가), 행정가의 역할과 역량 배양 필요

-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와 풀무학교 전공부가 입지한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 지역은 마을교육공동체로서 오랜 역사와 경험을 가진 다양한 교육관련 단체들이 활동 중인 지역으로서 학교와 마을은 서로 협력을 통해 호혜와 상생의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임.
 - 홍동을 비롯한 전북 완주의 방과후 협동조합, 서울 성미산 공동육아, 경기 시흥의 혁신교육지구 등 마을과 함께 학교를 만들어가는 사례가 곳곳에서 출현하고 있음.
- 최근 충청남도과 충청남도교육청간에는 학교와 지역이 함께 하는 ‘마을교육공동체’ 만들기를 위해 업무협력 협약서를 체결하였음.
 -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간 협력을 통해 교육혁신의 생산적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4대 추진전략, 19개 전략과제, 24개 세부사업을 발굴하였음.
- 이와 같이 자치단체 차원, 마을단위, 학교단위에서 교육을 통한 마을만들기, 즉,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한 움직임이 일상화되고 있는 것은 공교육의 문제는 기존의 학교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마을과 연계할때만 가능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기 때문임.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홍동면의 풀무학교 및 풀무학교 전공부, 마을내 다양한 교육관련 조직들의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을 통해 향후 마을발전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풀무학교로 시작한 지역교육공동체 ◀

02

1) 풀무학교의 설립

- 풀무학교를 설립한 목적은 가난 때문에 배움을 중단한 순진한 젊은이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고, 진리와 복음의 씨를 뿌려, 농촌의 일꾼으로, 조국의 아들 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데 있었음.
 - 풀무학원 설립목적을 요약하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음. 첫째, 배우고자 해도 가난하여 배울 수 없는 사람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줌. 둘째, 올바른 가치관과 교양, 실무능력을 갖춘 평민을 육성함. 셋째, 인격과 실력을 갖춘 농촌의 일꾼을 길러냄. 넷째, 순진하고 깨끗한 젊은이들의 마음 밭에 진리와 복음의 씨를 뿌림.
- 풀무학교는 오산학교의 정신을 살리는 교육 뿐 아니라, 지역사회공동체 형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협동조합 문화를 정착시키는 등 오늘에 이르고 있음. 나아가 풀무학교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농촌공동체와 폭넓게 연대하며 전지구적 차원에서 유의미한 농촌공동체로 발돋움하고 있음(백승중, 2013;70).
- 풀무학교는 교육방법이나 내용 면에서도 일반학교와는 달랐음. 이러한 풀무학교 교육의 틀은 국가가 지정한 교육과정이 아닌, 학교가 기반한 교육정신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음. 따라서 당시의 국가중심 교육이 지향하던 가치와 교육의 목표에 있어 많은 부분 그 지향을 달리하는 교육이었으며, 그 방향은 다른 아닌 인간과 삶의 중심에 둔 교육의 실천이었음(정해진, 2013:244).

2) 풀무학교의 발전과정

- 중학교 과정인 풀무고등공민학교 과정만으로는 사회에 나아가 직접 직업전선에서 일하기에는 실력면에서나 정신면에서 능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중학교 과정 졸업생이나 주옥로 선생을 비롯한 교사들, 풀무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절감하여 중등부 과정의 연장으로 고등부 과정인 ‘풀무농업기술학교’를 1963년 3월 9일에 병설하게 됨. 그러나, 중등부과정에서 고등부과정으로 자동 통합 연장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지원과 시험을 거쳐 입학하게 되어 있었음. 그리고 1963년 12월에 교육부에 인가 신청을 하여 1965년 1월 23일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인가를 받았음. 당시는 졸업 후 몇 과목의 검정고시를 봐야 고등학교 졸업자격이 주어졌으나, 1983년 이후는 학력을 인정받아 오늘에 이르게 됨(최어성, 1998:27).
- 흙바닥에서 작은 건물 하나로 시작한 풀무학교는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교를 지원하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도움이 있었고, 일본, 미국 등과 활발한 국제교류를 시작하며 해외의 단체로부터 회화교사가 파견되는 등 인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받았음. 1975년 9월에는 유기농업을 하는 일본 농민들의 단체인 애농회의 고다니 주니치 회장이 풀무학교와 풀무원을 다녀가고 이후 학교는 일본 애농회와의 교류를 통해 유기농업을 본격적으로 가르치는 계기를 맞게됨.
- 기숙사 공동생활 시작, 학교법인 설립, 네덜란드의 개혁교회 단체인 ICCO로부터 재정지원으로 개간지를 마련, 학교본관 1층 건물 건축 등의 과정을 통해 풀무학교는 학교가 추구하는 농업을 바탕으로 한 노작 교육, 공동체 교육 등을 현장에서 실현할 수 있는 물리적 조건을 갖추어 나갔음. 또한 다양한 해외교류를 통해 당시의 시골이라는 지리적 조건을 뛰어 넘어 세계를 내다보는 교육을 시작하였음.

- 풀무학교는 1970년대 후반부터 10여년간 학교내부의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됨. 현실적 학교운영과 건학이념의 관철이라는 두 문제를 두고 학교가 가장 큰 고민에 빠진 시기였음. 대학입시 중심 교육, 중등부의 폐교 등으로 정식 학력인정이 되지 않던 풀무학교에는 학생들이 오지 않게 되었으며, 교사를 구하는 일도 쉽지 않았음.
- 10여 년간의 어려운 시간을 보낸 학교는 90년대로 접어들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고 본격적인 교육의 틀을 만들어 감.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됨에 따라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지역의 학생들이 조금씩 늘어나 정원이 넘는 수의 학생들이 입학하기도 하였음.
- 1995년 이후 대안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되면서 풀무학교의 교육이 보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관심을 받기 시작함. 1996년에는 전국교육혁신 우수사례에 거창고등학교, 영산 성지고등학교, 민족사관고등학교, 그리고 풀무학교가 선정되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하기도 함.
- 1990년대 후반에는 지역 학생들이 도시나 외지에서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았고, 선발되는 학생들도 지역 학생이 아닌 외지 학생이 많아져 학교는 ‘지역속의 학교’가 되기 위한 고민에 빠지게 됨. 이러한 과정에서 학교는 지역과 외지 학생의 비율을 정하고, 전업농가정 출신의 학생들과 도시 출신의 학생들의 선발 비율을 달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임. 선발 방식도 면접과 글쓰기 등 다양한 방식을 동원하여 가능한 한 다양한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전형방안을 마련하였f,s. 학생선발을 위한 학교의 이러한 노력은 성적을 중심으로 학생 개인을 판단하여 선발하지 않고 다양한 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학교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한 것이었음.

1) 풀무학교 전공부의 설립

- 전공부 설립에 관한 논의는 무려 15년을 끌었고, 21세기가 시작하는 2001년에 풀무학교 전공부가 개교함. 전공부라는 학제는 교육부 법령상 농업고등기술학교는 이러한 교육기관을 부설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음.
- 홍순명은 덴마크의 백성대학이나 미국의 지역대학뿐 아니라 일본 애농학교의 전공부 사례도 두루 참고하였음. 전공부 설립은 오랜 세월을 두고 설득작업이 진행되었는데 그 최종단계에서 박완 교수(경북대학교 미생물학)의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 풀무학교 전공부가 문을 연 것은 2001년 3월 28일로 원래 계획은 그보다 한 해 전에 개교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여러모로 사정이 여의치 않았던 탓에 늦어짐.

2) 풀무학교 전공부의 성장

- 풀무학교 전공부는 실습위주의 교육이었지만, 실업계 전문대학들과는 다르게 인문과목의 비중이 높았음. 자연히 강사에게 의존하는 학과목이 많을 수 밖에 없었지만, 이것이 전공부의 특징으로 자리잡았음.

- 전공부 졸업생들은 대부분 농촌지역서 농사를 짓거나 농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음. 전공부의 특징은 무엇일까, 홍순명 선생은 전공부 교육의 지향점을 다섯 가지로 요약했음.
 - 첫째, 농업이 생명과 평화의 최고 가치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천직이며, 생명과 평화의 정신을 성서에서 찾아 일상생활 속에서 배우고 실천하는 건전한 농민을 기름.
 - 둘째, 오전에는 종교, 독서, 역사 등 인문교양과목을 배우며 전공과목은 계절과 실제성에 맞추어 같이 움직이는 실습을 오후에 함.
 - 셋째, 학교자체가 생태 유기순환체계가 이루어지고 농업의 다층적(1,2,3차산업화)발전을 실험하며 자립, 자급을 지향하는 한 마을공동체가 됨.
 - 넷째, 학교는 지역의 바른 방향과 방향을 같이하며, 실습지와 강의, 연구실이 지역에 열리고 또한 주민이 현장 교사가 되어 늘 배우고 자라는 학교와 지역이 됨.
 - 다섯째, 학교는 도시와 제휴하고 아시아 여러 나라 농민과 교류하여 그간 역사의 바닥에서 고통 받던 농민들이, 지역의 다양성을 살리며 사는 평화세계 실현의 주역이 되도록 함.

- 전공부는 생명과 평화의 정신을 체득하고 인문정신을 함양하며, 자급적 생태공동체를 건설하는 역군을 기르는데 교육의 목적이 있음. 오늘날 학교가 마을이고, 마을이 학교라는 마을교육공동체의 모습을 진작부터 내포하고 있음. 이 학교는 홍동지역과 불가분의 관계일 뿐 아니라 국내외의 뜻있는 시민들과 연대하여 세계평화를 실현하는데도 앞장섬 .

- 개교 이래 2016년 현재까지 약 90명이 학교를 졸업(창업)하였고, 이중 약 3분의 1인 30여명이 홍동지역에 남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중임.

3) 풀무학교 전공부의 교육과정

- 전공부의 학사일정과 하루생활은 1년 농사와 농촌의 생활흐름을 고려하여 배치하였음. 물론 교과목은 현실에 맞는 이름으로 일부 변경하였고, 학사일정도 1년 3학기제로 총2년 6학기로 구성하였는데 4,6학기는

외부현장실습을 가는 것으로 배치하였음. 그리고 하루를 다섯 부분으로 구분(새벽, 오전, 오후1, 오후 2, 저녁)하여 학기별로 수업과 실습시간이 변화는 체계였음. 실습을 중심으로 교육과정과 학사일정을 배치한 것임.

- 정민철(젊은 협업농장)은 실습교사를 제외하고 다른 교사를 구하는 문제, 내부교사들의 새로운 수업준비, 불확실한 학사일정, 학생들의 다양한 학력 및 사회경험차이, 생활관 운영방식, 부족한 실습조건, 많은 공사와 수업준비, 교사들의 교육경험부족과 소통부족, 불규칙한 교사회, 실습체계의 혼란 발생, 학점체계에 대한 불신임, 기존 대학체계에 대한 고정관념, 교사와 학생간 시각차이, 형식적 수업, 인문수업의 내용중복, 실습과 전공교실수업의 연관성 미흡 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지적함.
- 그러나 2006년을 분기점으로 전공부의 교과과정이 안정된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고 말함. 전공부 초창기 어려운 시기를 함께한 홍순명, 정민철, 임경수와 같은 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오늘의 전공부가 있었을 것으로 감히 생각해 봄.

4) 전공부의 미래

- 2008년 홍순명이 정농회와 협력강화를 위해 제안한 10가지 사항은 다른 단체 및 개인들과의 관계에도 원용될 수 있을 것임.
 - 첫째, 출판을 통한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 둘째, 국내외적 교류의 증대. 셋째, 지속적인 농민교육. 넷째, 주요기관의 임원이 전공부 경영에 동참. 다섯째, 국내이 농업인들의 상호교류. 여섯째, 바른농업의 의미를 홍보. 일곱째, 전공부가 농업인증을 비롯한 과학적 연구에 힘쓸 것임. 여덟째, 도시의 유통조직 못지않게 생산지 직판장의 보다 활발한 경영이 요구됨. 아홉째, 주요 농업단체회의 자녀의 입학 편의를 도모. 마지막으로 농민단체와의 협력 강화로 지역내 농업교육의 내실을 높이고, 전공부의 실습 역량을 높이는 것임.

마을교육공동체를 지향하는 홍동

04

1) 마을교육공동체란 무엇인가?

- 마을교육공동체는 마을공동체와 교육공동체가 만나서 형성되는 마을 단위의 교육공동체로 이해할 수 있으나, 이러한 상위수준의 개념적인 접근만으로는 마을교육공동체의 함의와 특징을 이해하기에는 한계.
- 최근 마을교육공동체라는 용어를 통해 마을과 학교의 협력 관계를 넘어, 마을 그 자체가 하나의 교육생태계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마을교육공동체의 의미를 탐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을’과 ‘학교’ 사이에 관계 맺음임.
- 김용련(2015)는 마을교육 공동체를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것’,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는 것’ 그리고 ‘아이들을 마을의 주인(시민)으로 키우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

2) 홍동면 마을교육공동체

- 홍동면 마을교육공동체는 마을내 교육관련 다양한 단체와 모임, 도서관, 학부모 등이 주도. 홍동면의 마을교육관련 기관단체는 풀무학교, 풀무학교전공부, 홍동초등학교, 홍동중학교, 금당초등학교, 갯골어린이집과 같은 정규교육기관을 비롯하여 마을통신 발간, 마실이학교 운영, 마을발표회 개최, 지역인재 및 조직발굴지원 등 홍동마을의 중간지원조직기능을 수행하는 마을활력소, 마을내 다양한 행사개최 및 마을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밝맑도서관, 마을과 학교가 서로 돕는 지속가능

한 농촌마을교육을 주도하는 햇살배움터 네트워크 등이 마을교육공동체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 이외에도 갯골목공실, 교육농연구소, 꿈이 자라는 뜰, 논배미, 생각실천창작소, 흥성환경농업교육관, 씨앗도서관, 흥성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그물교출판사 등과 같은 교육관련 단체, 풀무신헌, 흥동농협, 풀무학교생협과 같은 협동조합이 마을교육공동체의 실천을 주도.

3) 흥동면 마을교육공동체의 활동

- 흥동마을교육공동체를 목적, 주체, 공간, 활동, 네트워크라는 분석의 틀을 만들고 이를 준거로 사례지역을 분석.
 - 마을교육공동체의 목적은 마을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마을이 학교요, 학교가 마을이라는 이념 아래 학교와 마을이 온마을교육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임.
 - 마을교육공동체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과 같은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마을’, ‘학교’, ‘주민’, ‘코디네이터’가 주도하는 형태를 지향하고 있다. 마을내 공동체의 리더와 활동가들을 발굴하는 작업이 요구됨.
 - 마을교육공동체의 공간은 전통적인 학교와 같이 제한적 장소를 명명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이라는 공간적, 사회적공간이 모두 교육활동의 장이 될 수 있음. 마을교육공동체는 일반적으로 정형화된 시설과 장소의 개념보다는 마을 주민들이 ‘활동하는 공간’의 개념으로 확장되어 마을 전체가 학교가 되어야 하는 것임.
 - 마을교육공동체의 활동은 마을도서관 프로그램 참여, 학습동아리 참여, 마을발표회 참여, 마을내 다양한 단체들의 활동 경험, 마을협동조합 조합원 참여, 마을내에서의 배움과 나눔의 실천, 공정여행 참여, 마을문화예술제참여 등 마을에서 행해지는 주민교육과 마을의제 해결을 위한 활동이 될 수 있음.
 - 마을교육공동체활동의 네트워크는 학교와 마을, 아이들과 마을주민, 단체, 교육활동간 지속적이고 자율적이며 느슨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함. 느슨한 네트워킹을 위해서는 제도적 접근보다는 문화적 접근을 통해 학교와 마을의 소통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됨.

- 홍동면의 풀무학교, 풀무학교 전공부, 마을교육공동체 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제시코자 함.
 - 첫째, 풀무학교(전공부), 홍동초등학교, 홍동중학교 등에서 보듯이 학교가 주도하는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요구됨. 학교는 마을교육을 위한 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 운영, 공동체교육을 위한 통합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 마을은 교육적 인프라와 자원을 활용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둘째, 마을의 교육력 강화를 위한 주체를 발굴하고 육성지원하는 것이 요구됨. 학교교사, 마을지도자, 종교인, 학부모, 코디네이터, 사회적경제조직 등 마을내 활동가들과 같은 마을주체를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장을 지원하는 시책이 필요함.
 - 셋째, 학교와 마을간 파트너십 구축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마을의 과제와 교육문제의 해결을 위해 마을과 학교의 긴밀한 연계 및 협력 즉, 마을교육공동체를 위한 모임구성, 학교공간을 학생과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넷째, 마을과 학교간 작은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을과 학교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작은 사업들부터 만들어가는 것이 요구됨.
 - 다섯째, 마을교육공동체 참여주체 역할과 역량을 제안하고자 함. 교사, 학부모, 학생, 마을주민(활동가), 행정가(자치단체 및 교육청) 이 각각의 역할과 이를 수행할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